더불어민주당	보 도 자 료	2021. 12. 3 (금)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이재명 후보, 전북 미래산업 발전과 민심 경청 위해
네 번째 매타버스 타고 2박 3일 전북 일정 돌입

○ 12.3.~5. 익산, 전주, 군산, 김제(새만금), 남원, 임실, 정읍, 완주 등 전북 곳곳 현장 방문·경청
○ 전북 미래산업 발전 위해 식품클러스터·새만금·테크노파크 등 현장 방문
○ 전통시장 및 가게, 한옥마을, 의료원 등 관광지와 시장 등 민생현장에서 민심 경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2박 3일간의 전북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호남 민심 경청을 위해 지난주 광주·전남 일정에 이어 전북 일정이 계획됐다.

부·울·경과 충청, 광주·전남에 이어 네 번째로 기획된 이번 전북 일정은 전북의 미래산업 발전과 민생현장 방문, 민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의 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 테크노파크 등을 방문해 전북 미래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전북 대표 관광지와 전통시장, 의료원 등 민생·의료현장을 방문해 도민과 의료진 등 민심을 경청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부터 5일까지 이재명 후보가 익산과 전주, 군산, 김제, 남원, 임실, 정읍, 완주 등 전북 곳곳을 탐방하며, ▲3일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주 한옥마을과 가게맥주집(쓴소리경청), ▲4일 군산 공설시장, 김제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 남원의료원, 임실 하늘구름길캠핑장(명심캠핑), ▲5일에는 정읍 성광교회와 샘고을시장, 완주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융합기술센터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3일 시작하는 전북 매타버스 민생대장정의 첫 일정은 익산시에 소재한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방문이다. 이곳에서 이재명 후보는 식품산업 발전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전주로 이동해 전주한옥마을 거리를 걸으며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에서 청년 및 관광객 등과 동행하며 민심을 청취한다. 저녁에는 전주 가게맥주집에서 '쓴소리 경청'의 일환으로 2030청년 7~8명과 맥주를 마시며 청년의 불안과 생활 고민 등에

대해 솔직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4일에는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소비자 민심을 청취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 전망대를 방문해서는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사업을 위한 해수유통 및 오염원 축소, 농업용수 대책 강구 등 새만금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그려본다.

이어 전북 거점병원인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쓰는 의료진 격려와 열악한 의료시설·장비 점검을 하고,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대체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저녁에 진행되는 '명심캠핑'은 판소리 소리꾼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낸다.

마지막 날인 5일은 정읍 성광교회 방문 일정으로 시작된다. 이어 정읍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한 후,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융합기술센터로 이동해 '그린수소 시대를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수소에너지연구원과 수소산업단지 근로자들과 함께 국민반상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북이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전북의 신재생·미래에너지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2박 3일간의 전북 민생대장정은 마무리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매타버스 전북일정은 민심 쓴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전북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네 번째 민생 대장정"이라며, "민생 속으로 더 들어가서, 민심이 진짜 원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더 뛰겠다"고 강조했다. (끝)